◇선거를 통한 변혁 가능성 진단을 위한 기획 시리즈 〈完〉— 향후 92, 93년 선거에 대한 제언

세력교체와 정치개혁의 시대

선거, 변혁의 수단인가 결과인가

Ⅰ. 92년 정세와 성격과 민주 변혁의 전망

네 차례의 선거가 치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었던 92년 정권교체기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지나갔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투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기연기 되었으며 14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도 그리 만족할 만하지 않다. 13대에 이어 다시 한번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지만 정부 여당은 선거 다음날 곧바로 이를 여대야소로 바꾸어 버렸다. 14대 국회가 시작하였지만 아직 원구성을 위한 협상도 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대체 정권교체기라는 92년의 정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게만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현 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역학의 고착적 구조 때문이다.

무지한다시피 국민대중은 여야를 불문하고 기존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한번 더 한다고 해서 특정 당에 압도적인 지지가 모여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당은 고정지지율 30%에 더해 각종 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의 편파성과 대중들의 보수화 성향 및 지역주의 정치를 통해 그것에 힘입어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즉, 여당의 우세는 여당의 정치력의 단면이자 행정력과 이데올로기 동원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25%에 달하는 고정지지율과 어느 정도 지역주의와 결합된 대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및 야당 지도자의 정치적 지도력으로, 비록 여당의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 정도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의석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매우 안정적인 양당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외형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정치안정과 정치발전, 그 어느것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왜곡된 정치구도임이 드러난다.

현재의 양당구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양당이 (국민당까지 포함해 3당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모두 보수정당이라는데 있다. 민자당(국민당)이 기득권층, 지배세력 또는 자본의 이익을 지배하는 보수정당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민주당조차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판별기준으로 보면 분명한 보수정당이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선거에 대비하는 일련의 자체쟁비작업에 있어 당의 성격을 '3비주의(비용공, 비폭력, 비반미)'에 입각한 온건중도개혁주의 노선'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물론 보수정당이되 도시빈민과 노동자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 리적인 정당이라는 점도 같이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정당임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양당체기 문제인 것은 그것이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정치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의 자율성이 증대 되어가는 이른바 다원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정치가 사회의 제반문제를 수렴하고 이를 제도화된 공정을 통해 해소하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및 정치구조가 이 다원화,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한 여·야 정치세력들은 대선을 앞두고 각각 나름의 정치적 신조에 근거해서 이른바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의 입장들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세력도 보수와 진보와의 재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세대교체론과 정치개혁론은 보수정치권 내의 자리바꿈이나 생물학적 세대교체에 있거나 잘해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명정치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정치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개혁과 정치발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가? 우리는 또다시 보수정치세력들 간의 경쟁과 이합집산에 우리 정치를 맡겨 둘 수 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 민중진영은 책임을 가지고 국민대중에게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국민대중이 민중진영에게 결집을 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과제이다.

92년 정권교체기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전개된다면 14대 대통령선거는 다시 한번 민자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먼저 국민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자체개혁을 단행할 때만 크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민중진영에게 그리고 정치의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의 계속적 전진을 희구하는 국민대중에게 92년은 시실상 교, 정치세력은 단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던 우리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아직도 존재하는 각종의 반민주적인 법·제도, 이데올로기적 정치지형들이 기존 정치구조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력교체는 결코 한번의 정치적 승리로 완성되지 못한다. 그것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이 땅의 실질적인 민주정착을 수립하고 사회,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전 영역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민주변혁의 전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진영에게 있어 세력교체는 민중의 목표이자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는 도정에서 결림없이 추구해야 만 될 당면의 정치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3.24총선에서 민중진영은 크게 두갈래로 대응함으로써 세력재편의 근거를 확보하려 하였다. 하나는 민중당과 전국연합 등에서 시도한 독자적 외최전술들이었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진출하는 우회적 경로였다. 결과는 전자의 실패와 후자의 부분적 성공이었다. 따라서 굳이 말한다면 민중진영은 3.24 총선을 통해 앞으로의 세력교체를 위한 이후 작은 근거를 완내에 확보한 것으로 정리할 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는 민자당이 재집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또는 국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토될 문제가 아니게 된다. 물론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민중진영이 지향하는 세력교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는 한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민중진영의 정치력이 어느정도 확보되느냐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진영에게 있어 14대 대통령선거 후의 정국에서 민중진영이 세력교체와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그 일차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민중진영이 14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휘시켜 낼 것인가? 또, 세력재편과 정치개혁 그리고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민중진영의 정치과제에서 선거, 특히 14대 대통령선거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천적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이다.

Ⅱ. 한국사회 민주변혁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

그간의 통상적인 변혁론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주변혁의 견로가 주로 대중운동의 고양과 대규모 대중투쟁의 급속한 확산을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일반적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정치의 파행적 구조와 저급성으로 인해 선거 자체가 거의 아무런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었다. 사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적어도 5공화국이 지배한 8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정확한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간접선거에 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국회의원조차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배제된 채 권력과 금권에 의한 왜천적 부정선거로 선출되는 현실에서 선거의 변혁적 의의를 찾아내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전개된 한국정치의 변화는 비록 그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래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높였으며, 그와 비례해서 합법적 정치공간과 공개적인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높였다. 즉, 불발됐던 국한 사태의 전개로 합법적공간이 다시 축소되고 선거가 또 다시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되는 비정상적인 정치의 시대가 재개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정치활동의 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그 정치적 비중은 더 높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선거를 둘러싼 이른바 변혁논쟁이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지속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젠 선거와 합법정치공간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변혁론이란 더이상 가능하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체여량의 준비정도에 따른 선거투쟁론이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 논의에는 서로 대립하고 투개의 극단적인 편향이 개재되어 있다. 첫째는 선거란 근본적인 변혁으로 가는 길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민중진영의 변혁적 지향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보이콧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중진영의 힘이 워낙 약하므로 왜히 독자적인 선거 대응을 하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야권의 분열만 초래할 것이 아니라, 될 사람을 밀어주면서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이 양자는 민중진영의 전략경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포괄적인 동시에 결정적이다. 87년의 비판적 지지와 독자후보로 양자가 노정한 실천적 한계를 되짚을 것도 없이 당장 이 두 관점은 92년 대통령선거의 대응문제에서 또한번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면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실천상의 혼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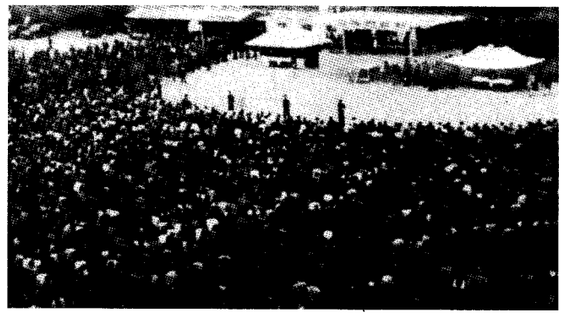
과연 이 혼란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은 불가능한가? 상식적으로 볼때, 한국사회의 민주변혁이 선거를 통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주·객관적 조건을 각인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92년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민주변혁을 실현하는 것은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그를 기반으로 한 국민대중의 대중적 정치실현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거듭 지적했듯이 선거가 정치적 중요성을 더해 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무시하는 대중운동, 이를 도외시 한 대중적 정치실현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선거와 대중정치의 실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로 남게 된다.

필자의 잠정적인 결론은 대중정치 실현이라는 민주변혁의 전략적 경로에 선거 및 합법정치활동이 전술적으로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대중정치 실현과 결합한다고 할 때는 그 비중에 결정적 그에 상응하는 주체적 실천이 일상적으로 조직되어져야만 한다. 즉, 대중정치실현이라는 전략적 경로를 분명히 하면서도 선거의 정치역학이 요구하는 운동의 혀신이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는 것이다.

또, 선거의 정치역학 혁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어떻게 조직하고 동원하는가 이며, 더 나아가 이렇게 조직되고 동원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어떻게 일상적 정치과정에서 변혁적으로 발현시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고 성 국

〈본교강사·정치학〉



◇현 정치 상황에서 민주변혁 실현은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대중 정치 실현에 달려 있다.

글 싣는 순서

1. 선거의 역할과 위상(선거 일반론)
2. 선진 자본국가의 선거
3. 제3세계 선거와 민주변혁
4.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해방이후-70년말)
5.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80년-92년 총선)
6. 향후 92, 93년 선거에 대한 제언

다원화사회 추세 맞춰 보수·진보 구도로 정치권 재편 절실

민중진영, 자체혁신으로 거듭나 민주변혁 주도해야

SAM YANG GROUP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성명 남, 여 대학교(원) 과 년제학
주소 (우: -)☎

※본 설문조사는 당사의 채용,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있는 응답을 바랍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 )
①경제적안정 ②사회적지위 ③자아실현 ④사회에 봉사 ⑤대인교류
2. 귀하의 졸업후 예상진로는? ( )
①일반기업체 ②국영기업체 ③외국인업체 ④금융계 ⑤공무원
⑥연구기관 ⑦언론계 ⑧교육계 ⑨사무업 ⑩전학 ⑪기타
3. 회사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 )
①성장성 ②안정성 ③급여수준 ④회사규모 ⑤최고경영자의 면모
⑥선배, 연고 ⑦승진속도 ⑧사풍 ⑨업종 ⑩회사의 사회공헌도
4. 기업체를 알게되는 경로중 두가지를 선택하면? ( )
①기업광고 ②가사 ③제품 ④선배, 친지 ⑤기업설명회 ⑥전문잡지
⑦TV, 라디오광고 ⑧산업시찰 ⑨산학제도 ⑩사우워치
5. 삼양사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 )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6. 삼양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그이유는? ( )
①회사의 건실성 ②대외적 공신력 ③노사화합 ④지속적 성장
⑤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⑥인화적 회사분위기 ⑦주위사람의 칭찬
7. 삼양사의 제품중 두가지를 아는대로 쓰시오.
Q:( ) 2:( )

※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250명을 추첨하여 고급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학업에 발전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 는 선)

■ 응답하신 설문지는 오려서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주민번호 110-725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삼양빌딩(주) 삼양사 인사부 설문조사 담당자 앞
■ 접수기한 : 1992년 6월 20일

자연을 생각합니다
인간을 생각합니다

제1회 「건설논문상」 현상 공모

21세기의 기업미래상으로서 세계적인 다국적 건설그룹을 지향하는 삼성종합건설이 미래 건설업분야의 주역이 될 대학(원)재학생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논문상」을 제정하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응 / 모 / 요 / 강

1. 참가대상
●각 대학(원) 재학생과 관심있는 분
2. 응모기간
●1992. 9. 1~9. 15
3. 응모주제(8개中 택일)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국토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이기주의(NIMBY)증가의 문제점 분석과 해소방안
●현행 건설업할제도의 현안문제와 개선책
●200만호 주택정책의 파급효과 분석과 합목성의 방향
●고층부동시설 미흡에 따른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현안문제와 활주전략
●건설재해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설시공 방법의 기계화·자동화에 대한 현안과제와 혁신방안
4. 응모요령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 (단, 한글맞춤이 표시된 원고지는 사용금함. 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제출시 30~40매 내외.)
5. 시상내역
●대 상 1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가 작 6명 : 상패 및 상금 50만원
●기 타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6. 작품심사
●1차 : 삼성종합건설 자체심사
●2차 : 삼성종합건설이 위촉하는 각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 발표
●1992. 10. 10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8. 시 상
●1992. 10. 18(삼성종합건설 창립기념일)
9. 제출처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9층 삼성종합건설 기획팀(중앙우체국 사서함 8526, 우편접수 가능)
10. 기 타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국내외 적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함.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종합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종합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할 것. (TEL : 727-0501~4)

삼성종합건설